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3.(월) 14:00 < 11.24.(화) 조간 > 배포 2026. 11. 20.(금)

구조개편 완수를 위해 사업재편 이행과 진행 중인 사업재편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당부-
-사업재편계획 준비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논의 연내 매듭 촉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23일(월)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에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진행 중인 사업재편은 기업 간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업계에 당부하였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에 따라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대산 1호 및 여수 1호 프로젝트가 올해 2월과 7월 잇달아 승인을 받고 9월에는 통합법인이 출범하여 설비 합리화까지 완료되는 등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 NCC (Naph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업황 회복도 지연되는 등 경영 여건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재편이 지연될 경우 구조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석유화학 구조개편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올해 안에 사업재편 논의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대산과 여수의 승인된 사업재편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고 계획된 설비 합리화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아직 최종 사업재편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눈앞의 이해득실보다 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한 책임을 모든 기업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사업재편 논의를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구조개편의 성과가 개별 기업을 넘어 고부가·첨단소재 중심의 산업전환과 핵심원료·소재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3-4933)
		담당자	사무관	김영숙	(044-203-4934)
		담당자	주무관	정서란	(044-203-49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 개요**

□ **목 적** : 석유화학 사업재편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일 시** : 11.23.(월) 14:00~15: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

□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장

○ (**업계**) LG화학, GS칼텍스, 한화토탈, S-OIL,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YNCC, H&L Advanced, DL케미칼, 한화솔루션, 한국화학산업협회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2	2`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2~14:05	3′	•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14:05~14:58	53′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4:58~15:00	2′	•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